



DRUG


약물

중독!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는 질병입니다.
치료 받아야 할 뇌의 병!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구. 단원구보건소 2층)
TEL 031) 411-8445~6 FAX 031) 411-8447 E-mail ansanacc@hanmail.net
www.ansanacc.or.kr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www.ansanacc.or.kr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메타버스

METaverse

- ✔ 중독 물질을 넘어 중독이 아닌가, 생각이 되십니까?
- ✔ 중독 물질을 사용해도 힘들고, 사용하지 않아도 힘드십니까?
- ✔ 혼자서는 끊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 ✔ 내 문제를 해결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 ✔ 물질 사용을 중단하고 싶은데,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다고 느끼십니까?
- ✔ 혼자서 외롭게 중독과 싸우고 있으십니까?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접속 QR



이용방법 QR

메타버스 내용

- 중독 관련 1:1 비대면 상담
- 자가 진단 검사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등

- 안산시민의 중독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기관입니다.
- 중독 문제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센터 이용으로 인한 어떠한 법적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여러분과 같은 문제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의 | 031-411-8445~6



희망으로
동행

Chapter 01

마약류란 무엇일까요? 02

- WHO(세계보건기구)의 정의
- 마약류의 종류

Chapter 02

마약류 중독의 이해 05

- 마약류 중독이란?
-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Chapter 03

약물! 그것이 알고 싶다 07

- 다이어트약, 안전할까?
- 공부잘하는 약, 안전할까?

Chapter 04

약물사용에 관한 잘못된 상식 08

마약류란 무엇일까요?

WHO(세계보건기구)의 정의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의존성)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내성)
 사용을 중지하면 온 몸에 건지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고 (금단증상)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

✓ 마약류의 종류

1 환각제

뇌 신경 세포의 기능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억제시키기도 하는 약물
 • 대마제제, 펜시클리딘(LSD/PCP), 엑스터시

2 중추신경 흥분제

뇌 신경 세포의 기능을 흥분시키는 약물
 • 암페타민류(필로폰 등), 코카인, 다이어트약(펜터민, 펜디메트라진 계열),
 공부잘하는 약 등

3 중추신경 억제제

뇌 신경 세포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약물
 • 흡입제, 아편류, 수면제, 신경안정제(벤조디아제핀계),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① 환각제

대마제제

- 대마의 잎과 꽃에서 얻어지는 물질로써, 400여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
- 대마초를 상용하는 사람은 무의욕증후군(사람을 매사에 반응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미래나 직장
 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 증상이 나타난다.
- 대마를 복용하게 되면 기억력 소실, 운동신경의 감소, 공포감, 공황, 불쾌감, 환각, 자제력 상실 등
 이 나타날 수 있다.

환각제

- 감각, 사고, 자아인식, 감정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지칭한다. LSD, 엑스터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엑스터시(MDMA)의 경우, 복용하게 되면 암페타민과 비슷하게 혼란감, 우울증, 편집증, 근육 긴장
 등이 나타나며 심장질환 및 순환기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② 중추신경흥분제

암페타민류

-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
- 주요 암페타민류 약물에는 암페타민, 텍스트로암페타민, 그리고 메스암페타민(필로폰)등이 있다.
-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하게 되면 불안정감, 환각, 과대망상, 정신이상, 불면증, 불쾌감, 공격성 등
 이 나타날 수 있다.

코카인

- 코카 또는 같은 속(屬)의 식물의 잎에 들어 있는 알칼로이드이며 국소 마취제로 사용된다.
- 현기증·구토증·말초신경 허탈·훈수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독성이 강하여 습관성이 되기 쉽다.

기타

-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이어트약, 공부잘하는약 또한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역할을 한다.
- 중추 신경을 흥분시키는 약은 소량 복용 시 식욕을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단기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오용 및 남용에 따른 부작용은 타약물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수준이며,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7p 참조]

3 중추신경억제제

마약류

- 통증을 줄여주고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이다.
- 천연 아편제(아편 등), 반합성 모르핀 유도체(헤로인 등), 합성 마약(메페리딘 등)으로 나뉜다.
- 복용 시 집중력 저하, 구토, 호흡 억제 등을 일으키며 복용 중단 시 심각한 금단 증상을 야기한다.
- 또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높일 수 있다.

마약성 진통제

- 아편에서 유래하거나 합성된 성분으로 통증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약물이다.
- 통증을 제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나 내성, 탐닉성과 신체적 의존성이 생기기므로 의료전문가의 지도 하에 투약 원칙을 지켜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 펜타닐, 모르핀, 코데인, 트라마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특히 펜타닐의 경우 모르핀의 50배~100배에 달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자살, 교통사고를 제치고 18~49세 미국인 사망 원인 1위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펜타닐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흡입제

- 본드, 락카, 부탄가스 등이 이에 해당되며 흡입하면 뇌 조직에 빠르게 영향을 미쳐 뇌를 손상시킨다.
- 내성이 있어 한 번 사용한 후에 계속 같은 수준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사용량을 늘려가야 한다.

마약류 중독의 이해

✓ 마약류 중독이란?

- 약물(마약류)의 부정적이고 위대한 결과를 알면서도 약물에 사로잡혀 강박적으로 약물을 갈망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드는 만성적인 뇌 질환
- 약물을 사용하게 되며 자제력과 판단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충동을 느끼는 질환

✓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미국 버지니아주 타즈웰 군에 거주 40대 여성으로 2명의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으나 1998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믿고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불과 4년 만에 갈색 머리는 하얗게 세어 버렸고 얼굴은 70대 노인처럼 쭈글쭈글해졌다.

[출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뇌

흡입제는 뇌의 화학물질을 변화시킬수 있고 중추신경계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킬수 있음. 대마초는 해마에 손상을 주어 기억손상과 대뇌부종, 뇌출혈, 편집증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음. 필로폰은 뇌의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발작이 올수 있음

코와 귀

흡입제 사용자는 코와 입주위가 자주 혈고 후 각기능에 문제가 생기며, 청각은 뇌에 정보를 보내는 세포를 파괴시켜 난청의 위험성이 있음

심장

흡입제과 필로폰은 정상적인 심장박동에 영향을 주어 심장박동과 사망의 위험성이 있음

치아

필로폰을 장기간 사용하면 이가 부식되고 빠짐

폐

타르 남용자는 호흡이 곤란해져 사망할 수 있으며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에 걸릴 가능성이 큼

신장

흡입제는 신장조직에 영향을 주어 면역계통 질환에 원인을 제공함. 엑스터시 사용자는 체온이 올라가고 진정되지 않으며 신부전증에 걸릴 수 있음.

간장

스테로이드 사용은 간의 종양이나 낭종이 생길수 있고 낭종은 내부혈류를 일으켜서 간의 파열을 일으킬수 있음

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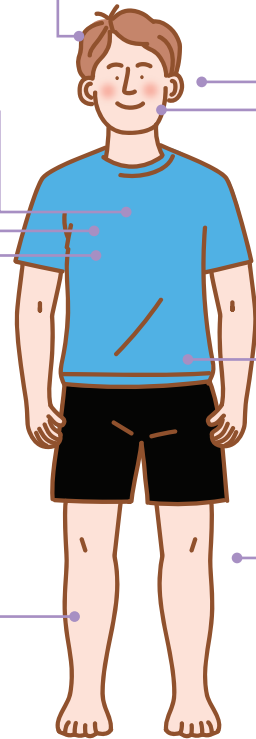
뼈 속의 골수를 손상시키고 성장호르몬의 역할을 방해해 키가 정상적으로 크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피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 적혈구, 백혈구의 새로운 세포 생성에 결핍현상이 생겨 재생 불량성 빈혈이나 백혈병 등이 생길 수 있음. 필로폰 사용은 골다공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음.

피부

흡입제를 사용하면 얼굴빛이 노랗고 피부에 윤기가 없어짐. 스테로이드 사용은 얼굴 전체에 피부병을 일으킬수 있음. 주사기 사용자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피부농양이 올수 있음.

면역 시스템

오염된 주사기를 사용하는 약물남용자들은 HIV, B형 및 C형 간염과 다른 전염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음. (전세계 HIV 감염자의 5~10%)



약물! 그것이 알고 싶다.

✓ **다이어트약, 안전할까?**

다이어트약이란?

- 다이어트약 중 식욕억제제는 펜터민(디에타민, 휴터민, 아디펙스, 판베시), 펜디메트라진(푸링, 펜스림, 펜디) 계 약물로 구분이 된다.
- 식욕억제제는 비만의 치료에 대한 단기 복용을 원칙으로 사용하나 최근에는 다이어트 약으로 많이 남용되고 있다. 식욕억제제는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습관성과 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며 심장병, 불안·초조, 흥분 상태, 정신 이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오용과 남용을 하지 않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 방법을 준수하여 적절히 복용하여야 한다.

✓ **공부잘하는 약, 안전할까?**

공부잘하는 약이란?

- 공부잘하는 약은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를 치료하는 항정신성의약품이다. 메디카넷, 메타데이트, 콘서타 등에 함유된 메틸페니데이트 혹은 기면증 치료 약에 함유된 모다피닐을 성분으로 제작한 약이다.
-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약물은 두통, 불안감, 초조, 불면, 공격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환각, 망상, 자살 시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모다피닐 계열의 약물은 두통, 신경과민, 불면, 불안, 우울, 정신착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 치료적 목적으로 제작된 약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로 약물 오용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집중력을 높이고 공부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의료전문가의 지도 하에 정해진 용량과 투여 방법을 지키며 사용되어야 한다.

[출처: 약학정보원]

약물 사용에 관한 잘못된 상식

Q1 약물 사용은 자신의 의지로 멈출 수 있다?

마약류 및 약물의 만성적인 사용은 뇌의 조절을 관장하는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며, 이로 인하여 갈망감, 조절 능력의 상실 등이 나타나 자신의 의지로는 멈출 수 없다.

Q2 약물 사용 한번으로 중독이 되지는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다. 물론 대부분은 처음부터 완전히 중독이 되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오심이나 구토, 어지러움, 들뜬 기분 등을 느끼지만 어느 순간에 환각이나 쾌감을 느끼게 되면 이러한 경험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영원히 유혹을 하게 된다. 처음 한 번에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급격히 의존에 빠지게 된다.

Q3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하면 뇌가 손상된다?

그렇다. 본드를 포함하여 각종 흡입제는 톨루엔이나 크실렌 등 여러 가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뇌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킨다.

Q4 마약류 및 약물을 사용한다면 나 자신에게만 해가 될 뿐 타인에게는 해를 입히지 않는다?

마약류 및 약물 사용은 가정, 직장과 길거리 등에서 다양한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해를 입힌다. (ex. 배우자와 어린이 학대, 이혼, 폭력 범죄, 교통사고 등)

Q5 착실한 사람이라도 마약류 및 약물 사용은 안전하다?

마약류 및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뇌가 손상되며, 발생한 문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Q6 대마는 담배와 비슷하데 왜 금지를 시킬까?

대마는 담배보다 훨씬 많은 자극제와 두 배나 많은 타르를 함유하고 있다. 대마는 두뇌의 신경세포 속에 있는 지방을 녹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 기능을 손상시킨다. 대마는 환각제로 분류되며 비현실적인 환각을 야기한다. 감각을 비틀어 놓는 것이다. 또한 수치심과 도덕심을 상실하게 되어 다양한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들을 일으킨다. 중단을 하게 되면 무의욕증후군을 야기하여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고 흥미가 없어지게 된다.

Q7 필로폰을 하면 살이 빠진다?

아니다. 오히려 몸을 망칠 뿐이다. 필로폰은 일종의 각성제로써 피로감을 줄여주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집중력을 강화시키고, 다행감을 유도하는 작용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용들은 일시적인 작용이며 효과가 떨어지면 평소보다 기분이 침체되고 우울해지며 의욕이 없어지고 피로감이 더 심해지며, 식탐이 생기기도 한다.

Q8 불법마약류를 사용해도 나는 잡히지 않을 것이다?

확신할 수 없으며 처벌은 엄하다. 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약물 사용은 그 자체가 범죄이며, 범죄임을 알면서도 사용한다는 것은 끝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은 조절해서 사용한다고는 하나 냉철히 생각해보면 전혀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이다. 범망에 걸릴 위험을 무릅쓰고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중독이다.

[출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